

## — Sun-25 —

덱사메타손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 나타난 급성 췌장염

전주 예수병원 내과 이재규\*, 조진웅, 이태관, 이용웅

급성 췌장염은 흔하게 임상에서 접하는 질환이지만, 원인을 발견할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 경우 약물 복용력에 대한 철저한 문진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최근 1개월 전부터 어깨 근육통으로 덱사메타손을 매일 2mg씩 복용한 환자에서 호산구증다증을 동반한 급성 췌장염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47세 남자로서,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일반 혈액 검사상 혈색소 15.2 g/dl, 백혈구 27,200 (호산구 6%), 혈액 화학 검사상 아밀라제 1300이상 U/L, 리파아제 2000이상 U/L, AST 27 IU/L, ALT 27 IU/L, CRP 정량 검사 12.1 mg/l (5이하), IgE 89 /, BUN 11 mg/dl, creatinine 0.9 mg/dl이었다.

복부 초음파 촬영 및 전산화 단층 촬영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약물복용 중단 및 보존적인 치료 후 증상 회복되고, 혈액 검사상 아밀라제 정상화되었으며, 호산구 증다증도 사라졌다.

## — Sun-26 —

만성췌장염에서 발생한 진단이 어려웠던 가성동맥류 2예

- 천자와 Hemosuccus pancreaticus로 확인된 가성동맥류 -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 내과학교실

김지훈\*, 김효정, 김윤홍, 정길만, 김재선, 변권수, 박영태, 이상홍

만성췌장염의 합병증인 가성동맥류의 진단은 혈관조영술로 확진하여 색전술이나 수술로 치료하지만 가성동맥류의 진단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고 이차 감염원 가성낭종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며, 수 차례의 입원과 검사, 불필요한 수술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성동맥류의 출혈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Hemosuccus pancreaticus'로 불리는 십이지장 유두부로의 활동성 출혈을 내시경상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최근 가성낭종을 동반한 췌장염 환자에서 진단이 매우 어려웠던 가성동맥류 2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case1)



(case2)

첫 번째 증례는 가성동맥류를 가성낭종의 이차 감염으로 생각하고 경피적 낭종배액술을 시행하기 위해 초음파하 천자침을 천자시, 천자침을 통해 막동성 혈액이 뱀어져 나와 가성동맥류 천자를 의심한 후 천자침을 낫은 채로 응급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가성동맥류 존재를 확인하고 steel coil을 이용한 혈관색전술로 치료하였고, 두 번째 증례는 토혈을 주소로 입원한 가성낭종을 동반한 만성췌장염환자에서 치료 경과중 토혈의 재발이 있어 시행한 응급 내시경 검사상 십이지장 유두부에서의 활동성 출혈을 확인하고, 가성동맥류의 체관내 출혈을 의심하여 응급 혈관조영술을 통해 확인한 후 gelform 색전술로 치료하였다.